

고향 못가고 갈 곳 없는 아쉬움 문화행사로 달래자

흥미롭고 감동적인 콜라보 세상 디자인비엔날레
이건희 컬렉션 등 유명작품 감상 전남도립미술관
전통문화관·국악상설공연·역사민속박물관 등 다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추석 연휴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연휴에도 갈 곳이 없는 시민들을 달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진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이견희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 등 굵직한 전시와 함께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역사박물관의 추석 맞이 한마당 행사, 광주 공연마루 한가위 국악한마당, 전통문화관 한가위 행사 등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흥미롭고 감동적인 디자인 세상…디자인비엔날레 눈길 끄는 작품

전 세계 50여 개국, 421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국제 디자인 행사로서 위상을 확인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술과 감성의 의미있는 콜라보로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1,039점의 작품과 디자인 체험,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꾸며져 추석 연휴 방문에 불만하다.

▲식물극장(1관 주제관)=피아투름보파니콧의 전시 컨셉 ‘식물극장(植物劇場)’은 식물과 정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다. 식물정원에서는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부한 초화류와 유리정원이 보여지며 식물 디자인이 주인공이 되는 서사가 영상으로 표현된다. 다가올 혹은 다가오고 있는 변화를 예감하고, 생활공간 속의 자연과 함께 디자인의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다.

▲맨디니 ‘푸르스트 체어’ (1관 주제관)=다양한 의자를 만날 수 있는 주제관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자는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푸르스트 체어’다.

맨디니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낡은 의자와 그 위에 덧입혀진 화려한 색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제작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왔다. 새로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당시의 디자인 산업을 비판하며, 기존의 것에 약간의 변화를 더하기만 해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재발견, 재정립, 재생산을 추구하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정신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초대됐다.

▲노진아 작 ‘나의 기계 엄마’ (3관 시관)=머신러닝을 통해 인간의 표정을 학습하며 인간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구현해나가는 로봇 엄마다. 로봇은 관객의 얼굴 표정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관객의 얼굴 표정 및 제스처를 따라한다. 제스처의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구현하는 다양한 표

정들이 관객에게 감정의 온기를 전달한다.

▲예술의 전당 조수미 홀로그램 씨어터 (4관 체험관)=세계적인 성악가의 조수미의 홀로그램을 미디어아트와 접목시킨 디지털 예술작품 ‘조수미 홀로그램 스테이지’도 놓쳐선 안될 작품이다.

고화질의 프로젝터가 설치된 전시실 내부에서는 프로젝션 맵핑 방식의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작품과 함께 실제 연주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홀로그램이 3면의 벽면을 넘나들며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작품의 음향적인 효과 및 몰입도의 극대화를 위해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해 3차원으로 조수미의 생동감 넘치는 음색을 마치 공연장에서 실제로 듣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포르세코리아/드리미스 온(4관 체험관)=리어 마운트 엔진, 왼쪽에 위치한 키박스, 독창적인 플라이라인. 페리 포르세코리아는 꿈꾸는 마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르세코리아는 총 20인의 신진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작품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드리머들이 독자적인 예술적 어법으로 표현한 자신만의 꿈, 그리고 포르세코리아 전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이건희 컬렉션 등 유명작품 풍성

지난 9월 1일 일반인에 공개된 전남도립미술관의 이견희 컬렉션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주말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이견희 컬렉션과 함께 하반기 기획 전시를 함께 개최해 국내외 3개의 큰 전시를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미술사 정립을 위한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베를린을 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러시아 출신 아티스트 그룹의 국내 최초 대규모 회고전 ‘AES+F.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가 그것이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김환기, 천경자, 오지호 등 전남 출신 거장과 유영국, 박대성, 임지순, 유강열, 김은호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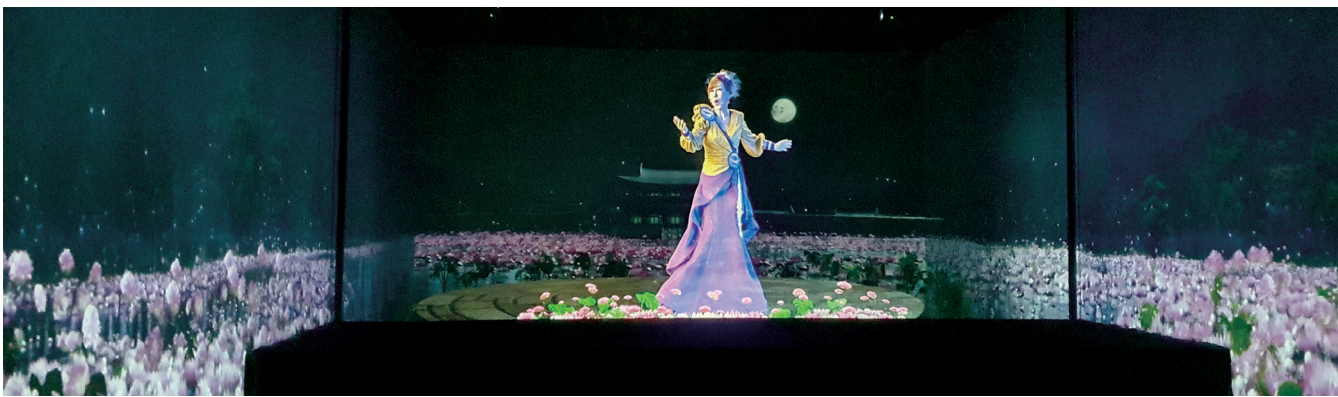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리는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은 고 이견희 회화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21점의 작품 중 19점의 작품을



맨디니의 푸르스트체어.



노진아 작 ‘나의 기계엄마’



디자인비엔날레 4관 체험관에서 상영중인 예술의 전당 조수미 홀로그램 씨어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에서 김한기의 작품 ‘무제’

공개하고 있다. 허백련의 작품 2점은 보존 상태의 문제로 전시되지 못했다.

전시장 입구에서 맨 처음 만나는 김환기의 1970년작 ‘무제’를 시작으로 오지호, 천경자의 작품이 이어진다. 김환기의 작품과 함께 1955년부터 1972년까지 김환기가 작업했던 ‘현대문학’ 표지 및 삽화도 아카이브로 구축돼 있어 눈길을 끈다. 김환기의 마지막 개인전이 열렸던 루이지애나에서의 사진과 작품도 볼 수 있다.

천경자의 작품은 1970년대 고독감과 우울함을 내포한 화려한 꽃다발을 그린 ‘화혼’과 몽환적 느낌이 돋보이는 ‘만선’ 2점과 함께 화문집, 수필집 및 자서전 등의 아카이브가 마련됐다.

이밖에 오지호의 풍경작품 5점과 임지순의 ‘여인좌상’, 유영국의 ‘산’과 ‘무제’, 컬렉션 중 유일한 생존작가 박대성 화백의 ‘서귀포’, ‘일출봉’, ‘항원정설

경’ 등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붙잡는다.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전=특별전에 이어지는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전시도 이목을 끈다. 진도 출신의 서예가 소전 손재형은 ‘서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주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세한도’를 되찾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전통을 넘어 현대적인 해석으로 세련된 멋을 표출하는 소전 선생의 작품 50여 점이 소개된다. 진도 소전미술관에서 가져온 작품들로 선생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된다.

▲AES+F.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4인의 러시아인 아티스트 그룹 ‘AES+F’가 펼치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자극하는 작품들로 국내 최초 단독 기획전이다. 모두 한국에서는 미발표된 작품들로 구성



천경자 작 ‘만선’

된다. 사진과 오브제로 선보이는 ‘뒤집힌 세상’, 조각 7점으로 구성돼 포토존으로 눈길을 끄는 ‘천사-악마’, ‘신성한 우화’ 사진 작품,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8채널 미디어 작품 ‘투란도트 2070’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시간 단위로 240명의 관람 예약을 받는다.

◇‘한가위 국악한마당’ 온라인 생중계 광주 공연마루에서는 21~22일 ‘한가위 국악한마당’ 공연이 열려 민요, 전통무용, 단막창극, 퓨전국악 등을 선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 교류협회 팀이 ‘한가위 맞이 후원서트’를 주제로 기악합주, 전통무용 ‘교방입춤’

등을 공연한다. 풍년과 흥취 있는 삶을 담은 민요 ‘풍년가’, 한가위 밝은 달 아래 둥글게 손을 잡고 모여 춤을 추며 부르는 ‘강강술래’ 무대가 한가위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어 22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 보존회가 선보이는 ‘열씨니 한가위’ 공연이 마련돼 있다. 가야금병창 3중주 ‘동백’을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판굿, 창극 방아타령, 이연정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각색한 창작 작품 ‘동동술래’ 등 신명나는 공연을 선사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광주 역사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은 18일부터 22일까지(추석 당일 21일 휴관) ‘한가위 우리 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연휴 기간 중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광박에 어서오체험 ▲문(Moon) 화재를 찾아줘! Feat.달명 ▲달달한 인생샷을 진행한다.

광박에 어서오체험은 전시실을 사전에 약하고 관람하면, 특별전 연계 ‘모모부인 & 두두장군 페이퍼토이’ 체험키트를 선착순 한정 제공한다.

문(Moon)화재를 찾아줘! Feat.달명은 전시실에 전시된 ‘보름달을 닮은 문화재’를 찾고, ‘달(항아리) 땅’ 인증샷과 필수 해시태그를 다양한 SNS에 업로드하면 전시관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문화상품을 증정한다.

달달한 인생샷(22일)은 박물관 정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오픈-포토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추석 연휴에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마련했다. 21~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로비에서 가족단위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곡강정 400세트와 차례 상차림을 직접 체험해보는 ‘차례상차림 체험키트 ‘500세트를 무료 제공한다.

◇전통문화관=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한가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연휴 시작일인 18일과 마지막 날 22일 시민들에게 한가위의 풍요로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연희 공연, 무형문화재가 전하는 이야기 마당과 전시, 시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한다.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명절을 보낼 외국인들과 낮은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송편 만들기 영상과 키트를 이용한 전통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한다.

18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전문예술법인 국악중심 연의 ‘광주의 풍류, 전통춤-판’이 펼쳐진다.

22일 낮 12시 30분 서석당에서는 광주 시 무형문화재 제4호 필장 문상호의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 너털마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를 즐길 수 있는 ‘한가위-줄놀이바나나’ 공연을 진행한다. 광대들이 선보이는 재주와 연희, 소리가 어우러져 코로나를 물리치고 건강하고 풍성한 웃음풍년을 기원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AES+F의 ‘투란도트 2070’